

## 1. 쿠다라(百濟) 야마토(倭)

齊明天皇 六年 九月 己亥朔癸卯  
百濟遣...等 來奏曰 或本云 逃來  
告難 今年七月 新羅...引構唐人  
傾覆百濟君臣總俘...於是...福信...  
誘聚散卒...既而百濟兵翻銳 唐不敢  
入...冬十月...福信遣...等... 乞師請  
救 并乞王子余豐璋...將爲國主...  
下 345-347

齊明天皇 七年 春正月 丁酉朔丙寅  
御船西征 始就于海路...居于...行宮  
...名曰長津五月...遷居于朝倉...宮  
...秋七月甲午朔丁巳 天皇崩于朝倉  
宮...皇太子奉徙天皇喪 還至...歸  
就于海...還泊難波 十一月壬申朔戊  
戌...殯于飛鳥 下 349-351

天智天皇 卽位前紀 七年七月...皇  
太子素服稱制...遷居于長津宮 稍聽  
水表之軍政 下 353

天智天皇 二年三月...率二萬七千人  
打新羅...秋八月...率健兒萬餘... 於  
白村江...戊申 日本船師初至者 與  
大唐船師合戰...己酉...官軍敗績 ...  
百濟王豐璋 與數人乘船 逃去高麗  
九月辛亥朔丁巳 百濟州柔城 始降  
於唐 下 357-359

天智天皇 七年 春正月 丙戌朔戊子  
皇太子卽天皇位...冬十月 大唐大將  
軍英公打滅高麗 ... 下 367-371

天智天皇 十年 十二月 癸亥朔乙丑  
天皇崩于近江宮 下 381

### (1) 새로운 역사의 창조

660년 9월 5일. 야마토 조정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 졌다. 지난 7월에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이 백제를 무너뜨리고, 군신들을 모두 잡아갔다는 것이다. 곧이어 속보가 들어 왔다. 복신이 흠어진 병사들을 모아, 다시 군대를 정비하니, 당군도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0월. 복신은 야마토 조정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동시에, 당시 야마토에 와있던 왕자 풍장을 새 임금으로 모시려하니 본국으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661년 1월 6일. 사이메이 여왕은 백제 구원 작전을 진두에서 지휘하기 위해 북 큐우슈우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났다. 7월 24일. 북 큐우슈우의 아사쿠라 궁에서 백제 부흥 작전을 손수 지휘하던 사이메이 여왕이 서거했다. 11월 7일. 태자(텐지)는 여왕의 유해를 아스카로 모시고 돌아와 장사를 지냈다. 662년 7월. 태자는 소복을 입고, 큐우슈우의 나가쓰 궁으로 거처를 옮겨, 바다 건너의 군사작전을 지휘했다.

663년 3월. 태자는 2만 7천명의 군대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게 했다. 8월 28일. 백제를 구원하러 온 야마토 군사 1만 여명이 백촌강에서 궤멸했다. 663년 9월 7일. 주유성이 당군에게 함락되었다. 풍장은 몇 사람만을 거느리고 배에 올라 고구려로 달아났다.

668년 1월 3일. 그 동안 왕위 계승 절차도 밟지 못하고, 소복을 한 채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사태를 대처해 오던 태자가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다. 텐지 왕이다. 668년 10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671년 12월 3일. 텐지 왕이 서거 했다.

일찍이 텐지의 동생은 형님의 둘째 딸(후에 지토오 여왕)

을 맞이해서 처로 삼았었다. 그는 소위 “진신의 난”을 일으켜, 673년 2월 27일에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텐무 왕이다. 681년 3월 17일. 텐무는 6인의 왕자와 6인의 대신들에게 역사 편찬 작업을 명한다.

여기까지가 일본서기의 기록들을 발췌한 것이다.

670년 12월조의 신라본기는 “왜국”이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바꾸었다고 기록을 했다. 텐지 왕이 서거하기 바로 1년 전 일이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당나라의 힘을 빌린 속적 신라에게 차례로 정복되자, 일본 땅에서의 야마토 정권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극도에 달했다. 텐무(673-686년)는, 백제와 절연된 토착 정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기 위해, [681년 3월 17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명했다. 고사기는 텐무가 상고의 역사를 깊이 탐구해서 선대의 일들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686년에 텐무가 서거하기 이전 어느 날, 드디어 새로 만든 역사의 윤곽이 잡히었고, 천재적인 기억력을 보유한 28세의 히에다 아레가 그 내용을 암기 했다.

당시 텐무가 느꼈던 위기감과 새 역사 창조의 필요성은 고사기 서문에 잘 요약 되어있다: “여러 씨족들의 본가가 보관하고 있는 우리 역사(帝紀及本辭)의 기록 내용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이제 당장 그 틀린 내용들을 고치지 않으면,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 국가의 기틀(邦家之經緯)과 왕실의 기반(王化之鴻基)이 상실 될 것이다. 이제 이들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실을 바로 잡아, 후세에 전하려 한다.”

661년에 텐지의 넷째 딸로 태어난 겐메이 여왕(707-715년)은 텐무에게는 조카딸이 되며 동시에 며느리였다. 이 겐메이는, 711년 9월 18일, 자신의 언니의 남편이며 시아버지인 텐무가 암기 시켜 놓은 새 역사(勅語舊辭)를 글로서 기록(撰錄)을 하도록 야스마로(安萬侶)에게 명령했다.

야스마로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712년 1월 28일에, 히에다 아레의 구술을 받아 기록한 내용을 겐메이 여왕에게 바쳤다.

天武天皇 下 二年二月丁巳朔癸未  
...即帝位於飛鳥淨御原宮 下 411

天武天皇 下 十年三月...丙戌 天皇  
...以詔...令記定帝紀及上古諸事  
下 447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  
上 十年 十二月 ... 倭國更號日本  
自言 近日所出以爲名 三上 128

飛鳥清原大宮御大八州天皇御世 ...  
潭探上古...明觀先代...朕聞 諸家之  
所 齋帝紀及本辭 既違正實 多加虛  
偽 當今之時 不改其失 未經幾年  
其旨欲滅 斯乃邦家之經緯 王化之  
鴻基焉 故惟 撰錄帝紀 討覈舊辭  
削偽定實 欲流後葉 ... 姓稗田名阿  
禮...令誦習...於焉...以和銅四年 九  
月十八日 詔安萬侶 撰錄稗田阿禮  
所誦之勅語舊辭...獻上...五年正月  
廿八日 古 44-48

이것이 바로, 년월일(年月日)도 없이, 새로 만들어진 역사의 큰 줄거리만을 서술한 고사기라는 것이다.

야마토 조정은 곧이어, 텐무의 아들인 토네리 친왕과 야스마로의 공동책임 하에, 이 고사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년월일에 따라 기록을 하는) 편년체 형식의 니혼기(日本紀)를 편찬 시켰다. 겐메이의 딸인 겐쇼오(715-724년)여왕의 재위 6년째인 720년에 완성된 이 일본기는 후세에 일본서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비록 서문도 없고, 주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전(列傳)도 없고, 또 제도, 관습, 지리 등 각종 정보를 서술하는 지(志)도 없지만, 최소한 본문만은 정식 사서로서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야스마로는 723년에 죽었다.

## (2) 야마토 왕국의 창건 시점

일본서기는 야마토 왕국의 정사이다. 일본서기는 야마토 왕조가 기원전 660년에 세워졌다고 기록을 했다. 기원전 660년이란 인도의 석가모니(B.C. 566?-486년)가 태어나기 100여년 전이며, 중국 춘추시대(B.C. 722-404년)의 전반에 해당한다. 서양으로 말하면, 전설상의 로마 건국 년도인 기원전 753년과 로마에서 공화정이 시작된다는 기원전 509년 사이에 해당한다.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B.C. 336-323년)이 나타나기 300여년 전이다. 하지만 일본의 사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 그 누구도 이 건국 년도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야마토 왕국은 어느 때 세워진 것일까?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은, 야마토 왕국이 4세기 말경의 오오진(應神)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712년에 완성된 고사기와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에 의하면, 오오진은 야마토 왕국의 15대 왕이다. 일본서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오오진은 서기 390년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어째서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이 야마토 왕국을 오오진

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제 아주 잘 알려진 학설의 내용을 소개 해 본다.

20 세기 초, 와세다 대학의 쓰다 소오끼치 (津田左右吉: 1873-1961 년) 교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오오진 이전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야마토 왕족을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지배자로 만들기 위해, 모두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井上 외, 1984, 271-273 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음.)

쓰다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근거를 보자.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보면, 시조 진무 이후 신공 왕후의 남편이라는 추우아이 왕까지의 (즉 2 대부터 14 대 왕까지의) 13 명의 왕들은, 단지 죽은 다음에 만들어서 부여된 시호(和風諡號)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명칭들을 검토 해 보면, 전혀 각자의 고유성이 없다. 반면, 15 대 왕이라는 오오진 부터는, 각기 왕자 때부터 실제로 사용된 특유한 이름을 그대로 왕의 시호로 기록했다. 오오진의 왕자 때 이름은 “호무다”이고 (和風)시호도 “호무다”이다. 진무나 오오진이라는 중국 식 명칭들은, 고사기와 일본서기 원본에 기록된 명칭들이 아니라, 8 세기 후반에 새삼 중국식(漢風)으로 만들어 부친 시호들이다.

쓰다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근거를 보자.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14 대 왕이라고 하는) 추우아이까지의 왕위 승계 형식을 보면,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자간의 왕위 승계란, 7 세기 후반 텐지 왕 이후에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되었던 것이다. 오오진 이후 텐지 이전의 왕위 승계는 대부분 부자간이 아니라 형제간 이었다.

이와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쓰다는 오오진 이전의 왕들에 대한 기록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하긴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보면, 2-9 대와 13 대 왕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기록다운 기록도 없다. 14 대 왕이라는 추우아이 편은, 거의 전부가 (가공의 존재인) 신공 왕후에 관련된 얘기뿐이다. 쓰다 역시 오오진을 야마토 왕국의 시조로 보았다.

“記紀を批判的に扱った津田左右吉は、神武(1)より仲哀(14)までの一四代について、天皇の尊號のみが記されているのは、記紀の材料となつた帝紀に、すでに實名=諱を記していなかったからである。そして尊號をみると...六世紀より後の、安閑(27)より元正(44)にいたる實在の各天皇の尊號にそれぞれ對應して、固有性がない。それに比べると、應神(15)より繼體(26)までの各天皇は...概して天皇の實名、すなわち皇子の時の名をそのまま天皇の稱號と記しており、もっとも帝紀の原型に近く、六世紀半ばには、成書として成立していた原帝紀に、すでに掲載されていたのであろうと指摘したのである。次に、天皇の系譜をみても、仲哀(14)より前は、王位の繼承を父子相承としている。これは、應神(15)以後にしばしばみられる兄弟相承に比べると現實性がない。父子相承の原理は七世紀後半までは成立しなかったはずであるから、その頃に作爲されたものであろうとした....このような...批判は正當なものといえよう。しかるに問題は、ここからその後に積極的な應神王朝論が展開されたことである。” 井上光貞、永原慶二、兒玉幸多、大久保利謙 (1984: 271-272)

쯔다 교수는 일본 내에서 천황 중심 군국주의 사상이 한창 일 때에 이런 학설을 주장 하다가, 1940년에는 주요 저서 4 권의 발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1942년에는 황실의 존엄성을 모독한 죄로 3개월간의 금고 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쯔다의 이론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은 야마토 왕조가 오오진(호무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학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상당수의 전후세대 일본 사학자들은, 애당초 6세기 전반에 편찬된 테이키(帝紀)라는 역사책의 원본에는, 오오진에서 케이타이 까지 12명의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믿고 있다.

일본 천황이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한 후, 1951년 9월에 미국 등 48개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어 주권을 회복 할 때까지, 일본은 연합군 총사령부의 이름으로 주둔한 미군의 점령 하에 있었다. 맥아더 (MacArthur) 총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일본 정부가 제반 정책을 집행하는 미국의 간접 통치 기간 중인 1949년, 쯔다는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을 수여 받았다.

나는 야마토 왕국이 오오진(호무다)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쯔다가 제시하는 근거에 추가해서) 세 가지 더 제시하려 한다.

첫 번째의 추가 근거를 제시한다. 쯔다는 오오진 이전의 왕위승계가 모두 부자간의 승계라는 특이점에 의혹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왕위 승계가 아주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오오진 이후를 보자. 오오진에서 닌토쿠로 승계될 때, 한바탕 골육상쟁 유혈극이 있었다. 닌토쿠에서 리츄우-한제이 형제로 승계되어가는 과정에서도 골육상쟁 유혈극이 있었다. 한제이에서 닌교오로 승계될 때, 유혈극은 아니지만, 아주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닌교오에서 안코오-유략쿠 형제로 승계되는 과정에서도, 또 한바탕 골육상쟁의 유혈극이 있었다. 유략쿠-세이네이 에서 켄조오-닌켄 형제로 승계될 때에도, 또 닌켄-부레츠 에서 케이타이로 승계될 때에도, 아주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었

다. 형제간의 왕위승계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왕위승계가 항상 순탄치 못했다는 점이, 오오진 이후의 고사기-일본서기 기록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 준다.

두 번째의 추가 근거를 제시한다.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면, 14 대 왕이라는 추우아이 가 죽었다는 해로부터 15 대 왕이라는 오오진의 즉위까지 장장 71 년에 달하는 공백 기간을, 자타가 공인하는 가공의 존재인 신공 왕후가, 섭정을 하며 채우고 있다. 따라서 오오진(호무다)부터가 실존 인물이라는 주장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

세 번째의 추가 근거를 제시한다. 712 년에 고사기가 편찬 완료되자, 야마토 조정은 즉시 전국에 명을 내려, 각 지방의 현황과 옛부터 전해오는 온갖 이야기 등을 기록해 올리도록 했다. 이들 기록들은 720 년에 완성된 일본서기를 편찬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들 중 지금까지 전해지는 하리마 풍토기는, 713-715 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 하리마 풍토기를 보면, 독자로 하여금 호무다가 야마토 왕국의 시조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다. 예컨대, 호무다는 수없이 순행과 사냥을 하고, 수많은 지명들이 호무다의 사소한 언행들과 연관지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언급이 없다.

### (3) 일본 천황가의 근원

그렇다면 390 년 경에 야마토 왕조를 세운 일본 천황가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야마토 왜(倭),” 즉 듣기 좋게 바꾸어 말하자면, “야마토 일본”은 어떻게 창건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내용의 해답이 있다. 우선 “일본인”이란 이 세상의 어느 민족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고유한 민족”인데, 야마토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에 걸친, 점진적인 정치적 사회적 발전 단계”를 거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순수한

## &lt;주 1-1&gt;

에가미는 기마민족설을 (고고학적인 물증뿐 아니라) 역사적 사료에도 근거를 둔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 기마 정복집단의 지도자가 한반도 남단에 위치했던 미마나 라는 지역의 “미마키”라는 존재이었다고 주장한다. 위서 동이전은, 마한에 50 여개 나라가 있고, 진왕(辰王)은 그 중 목지국(目支國)을 다스리는데, 변한-진한 24 개국 가운데 12 개국이 진왕에게 신속(臣屬)하고 있으며, 마한 사람이 항상 진왕이 되어 세습을 하지만, (마한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진왕이 자립해서 왕이 되지는 못한다고 기록을 했다. (아무리 거들 읽어보아도 명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기록이다.) 에가미는, 3 세기 동이전에 등장하는 바로 이 진왕들의 후손인 미마키가 일본열도의 정복을 지휘했으며, 또 그 진왕들은 일찍이 부여-고구려-백제 지역을 경유해서 한반도 남단의 가야 지역에 정착하게 된 기마민족의 주장일 것으로 추정한다. (Egami, 1962)

토착 지배세력”인 천황가 선조들의 노력으로, 야마토 지역을 본거지로 해서 성립된, 일본열도 최초의 통일 국가라는 얘기다.

수많은 일본 사학자들은,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이 모범답안을 다양한 형태로 포장해서 일본 국민에게 제공을 해오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는 고전적 경제 법칙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북중국-내몽골 지역의 기마 유목민족 전문가인 동경대학교 교수 에가미(江上波夫: 1906-2002)의 기마민족설은, 아주 이례적으로, 야마토 왕국의 근원을, 대륙에서 건너온 기마 민족에 의한 정복에서 찾으려 했다.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대략 4 세기말을 전환점으로 해서 새삼 발견되는, 말과 관련된 다양한 고분 발굴물 이다.

하지만 에가미는,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일본 국민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그 기마 정복민족의 정체를 최대한 애매 모호하게, 또 신비하게 만들었다. 즉, 구체성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학설에 대한 일본 대중의 거부감을 최소화 하려 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나라에서 말을 타고 건너온 왕자와 그 일행에 의해 야마토 왕국이 창건되었다면, 오히려 낭만과 신비감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기마(騎馬)민족설이란 바로 “천황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귀에 익은 (고사기-일본서기) 얘기였다, “말을 타고” 내려왔다는 수식어를 하나 더 추가한 꼴이었다. <주 1-1>

에가미 교수가 1948 년 이래 끊임없이 주장해 온 이 기마 민족설은, 수많은 일본 사학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야마토 왕국이 대륙에서 도래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정복 왕조라면, 과연 그 도래인 집단은 누구였을까?

컬럼비아 대학교수인 레드야드(Ledyard)에 의해 1975 년에 수정된 기마민족설은, 에가미가 말하는 그 기마 정복자들의 근원에 대한 일차적인 구체화 작업이었다. 레드야드의 “수정판 기마민족설”에 의하면, 4 세기 후반에, 만주 땅의 기마 민족인 부여 사람들이, 조국의 멸망의 슬픔을 뒤로하고 한반도를 쳐 내려오면서, 백제 지역을

지나 곧바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일본열도를 정복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고분 발굴물의 성격이 크게 바뀐다는 시기와도 시대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 된다. <주 1-2>

레드야드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서기 346 년에 부여가 망하게 되었다는 기록과, 일본서기의 신공왕후 조에서 발견되는 (대략 350-380 년 기간에 해당하는) 종잡을 수 없는 기록들이다. 레드야드 말대로, 만약 이 부여 사람들이 한반도를 증횡무진으로 쳐 내려오는 길에, 한국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 말 뒤에 묶어 끌고 일본 열도에 건너와서, 산갈이 큰 천황 묘들을 만드는데 부려 먹었다면, 현대 일본 사람들의 기분도 아주 크게 상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애당초 부여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천황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나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것이다.

내가 1988 년과 1994 년에 출판한 저서들에서 주장한 것은, "4 세기 후반에 백제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건너와 야마토 왕국을 세웠고, 천황족의 근원은 백제 왕족이다"라는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학설은, "쿠다라(百濟) 야마토(倭)" 설이라 할 수 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백제라고 한자로 써 놓고 "쿠다라"라고 읽었고, 또 왜라고 한자로 써 놓고 "야마토"라고 읽었다.) 내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다. 보완적인 성격의 근거는 신찬 성씨록, 속일본기, 풍토기, 삼국사기, 삼국유사, 중국 왕조의 정식 역사 책(정사) 등의 기록들과, 다양한 고고학적 물증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등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상권에 해당하는 신들의 시대 (신대) 기록을 읽어 보면, "일신(해의 신)"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 라는 존재가 등장한다. 나는 상권의 니니기 와, 중권에서 등장하는 시조 이하레(진무)와 15 대 왕 호무다(오오진), 이 세 명의 상이하게 기록된 존재가, 야마토 왕국의 실제 시조인 호무다 한 사람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기록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즉,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는, 야마토 왕국의 시조에 대한

<주 1-2>

에가미는 미마키를 4 세기 초의 인물로 보기 때문에, 기마민족의 일본열도 정복 시기를, 발굴된 고분 내용물들의 성격이 대폭적으로 바뀌는 (대략 375 년 경을 전후로 하는) 시점으로 부터, 적어도 반세기 이상 소급 해야 한다. 만일 에가미의 "미마키" 설이 옳다면, 말과 관련된 후기 고분시대의 유물들이 4 세기 초에는, 적어도 최초로 침공이 시작된 장소라는 큐우슈우 땅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레드야드는, 부여족이 369 년경에 한반도의 남부를 점령 하고 난 후, 4 세기 말 경에 일본 열도의 야마토 지역을 정복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레드야드는, 고고학적 물증에 입각해서 추정하는 정복 시기(즉 4 세기 말)와 그 기간에 해당 된다고 믿어지는 일본서기의 기록들을 결합 시킴으로서, 에가미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시대착오적인 요소를 제거 하려 했다. 즉, 고고학적 *missing link* 의 부담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Ledyard, 1975)



應神天皇 十四年...弓月君自百濟來歸...領己國之人夫百廿縣... 然因新羅人之拒皆留加羅國 十六年...乃率弓月之人夫與裴津彥共來焉... 十年...倭漢直祖阿知使主...並率己之黨類十七縣 而來歸焉 上 371-375

弓月王 譽田天皇十四年來朝... 大鷦鷯天皇御世 賜姓曰波陀 今秦字之訓也...大泊瀨稚武天皇御世... 秦民九十二部一萬八千六百七十八人 新 307

雄略天皇 七年...集聚百濟所貢今來才伎...命東漢直掬 以新漢陶部高貴鞍部堅貴 畫部因斯羅我 錦部定安那 錦譯語卯安那等 遷居于...或本云 吉備臣弟君 還自百濟 獻漢手人部 衣縫部 肉人部 上 475-477

應神天皇 八年...百濟記云...阿花王...遣王子直支 上 367  
十六年 百濟阿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上 373  
卅九年春二月 百濟直支王 遣其妹新齊都媛 以令仕 上 379

仁德天皇 卅一年 百濟王之族 ... 爰酒君來之...卅三年...捕異鳥... 百濟俗號此鳥曰俱知 是今時鷹也 乃授酒君令養馴 未幾時而得馴... 居腕上 獻于天皇 是日幸...遊獵 時雌雉多起 乃放鷹令捕 ... 上 409

雄略天皇 二年 百濟池津媛 違天皇將幸 姪於石川橋 天皇大怒... 以火燒死 百濟新撰云... 蓋鹵王立 ... 天皇遣...來索女郎 百濟莊飾慕尼夫人女 貢進於天皇... 上 463  
五年 百濟加須利君 蓋鹵王也 ...

설화적인 기록은 니니기 부분이 담당하고, 전투와 정복의 기록은 진무(이하레) 부분이 담당하고, 백제 사람들의 대규모 도래 기록은 오오진(호무다) 부분이 담당하고 있다.

720 년에 완성된 일본서기를 보면, 하타 씨족의 선조인 궁월군이, 오오진 16 년[405 년]에 120 개 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또 오오진 20 년 조는, 야마토 아야 씨족의 조상인 아찌 오미가, 17 개 현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본에 건너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들 하타와 야마토 아야 두 씨족은, 백제의 부(部) 제도를 본 따서, 야마토 조정의 재정출납 등 온갖 행정 기능을 맡아보게 되었고, 그 덕으로 야마토 왕실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815 년에 완성된 신찬 성씨록에 의하면, 5 세기 후반 유라쿠 치세 때, 하타 씨족 사람 수가 (92 개의 부를 구성하며) 총 18,670 명에 달 했다고 한다.

일본서기 유라쿠 7 년[463 년] 조를 보면, 안장을 만드는 사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비단을 짜는 사람 등이 그 해에 대거 “백제에서” 건너왔다. 이들 새로 도착한 기술자들을 오오진 때 이미 건너와 있던 (야마토 아야 씨족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새로 건너온 “이마끼” 아야(今來漢, 新漢)라 부르고, 기존 아야 씨족이 관할토록 했다.

동경대학 교수이었던 문화인류학자 이시다(石田英一郎: 1903-68 년)는, 야마토 왕국이 한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수립된 것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것도 자유지만, 그렇게 되면 오오진 시대에 한반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온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Ishida, 1974 : 85).

일본서기를 읽어보면, 백제 왕실과 야마토 왕실이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일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 예컨대, 야마토 궁중에는 백제 왕족 가운데 누군가가 거의 항상 체류를 하고 있었다.

백제 아신왕(392-405 년)의 태자인 전지는, 397 년부터 405

년까지, 오오진과 함께 야마토에 살았다. 그는 405 년에 부왕이 서거하자 백제로 돌아와, 그 뒤를 이어 전지왕(405-420 년)이 되었다. 백제 전지왕은 자신의 누이동생 신제도를 야마토에 보내, 오오진을 모시게 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오오진의 아들 다투쿠 치세 때의 기록을 보면, 백제 왕자 주군이 야마토 궁중에 와서, 매를 길들이고, 다투쿠와 함께 매사냥을 다니기도 했다. 백제 개로왕(455-475 년) 때에는, 유라쿠 왕에게 모니부인의 딸을 택해서 왕비 감으로 보내주었는데, 그녀가 부정한 짓을 해서 그만 화형을 당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개로왕은 자신의 동생 곤지를 야마토 조정에 보내 유라쿠 왕을 돕게 했다. 479 년에 백제 삼근왕(477-479 년)이 죽자, 이 곤지의 둘째 아들이 백제로 돌아와서 동성왕(479-501 년)이 되었다. 일본 서기는 유라쿠가, 백제로 떠나는 곤지의 아들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작별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505 년, 무녕왕은 왕족 사아군을 보내 야마토 조정에서 일을 돕도록 했다. 597 년 4 월, 백제 위덕왕은 아좌 왕자를 보냈다. 일본서기는, 의자왕의 아들 풍장이 631 년에 건너 왔다고 기록했다. 야마토 지배씨족 1,182 개의 조상을 기록하고 있는 신찬 성씨록을 보면, 마히또(真人)가 황족 중에서 으뜸이기 때문에, 수도지역의 마히또 씨족들을 제 1 권 첫머리에 수록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기록 내용을 검토해 보면, 모든 마히또 씨족을 백제 왕족의 후손으로 간주 할 수 있다. (5 장 2 절 참조)

660 년, 백제의 수도가 나당 연합군에게 함락된 후, 왜에서 돌아온 왕자 여풍장은 복신과 함께 주유성 에서 항전을 계속했다. 당시 사이메이(655-661 년) 여왕과 태자 텐지(662-671 년)는, 큐우슈우까지 나와서, 백제 구원 작전을 진두지휘 했다. 663 년, 야마토 조정은 구원병 만 여명을 보냈는데, 이들 왜군은 백촌강 전투에서 궤멸되었고, 주유성은 당군에게 함락되었다.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그러자 나라 사람들은 서로들 다음과 같이 말을 주고받았다: 주유가 함락 됐구나.

乃告其弟軍君 昆支也 曰汝宜往日本以事天皇 上 471

雄略天皇 十三年 百濟文斤王薨天王 以昆支王五子中 第二末多王...勅喚內裏 親撫頭面 誠勅慰勸使王其國...是爲東城王 上 497-499

武烈天皇 七年... 百濟王遣斯我君...百濟國主之骨族...奉事於朝 下 17

推古天皇 五年夏四月 百濟王遣王子阿佐 下 175

舒明天皇 三年三月 百濟王義慈入王子豐章...下 229

真人是皇別之上氏也 并集京畿以爲一卷附皇別首 新 147

天智天皇 二年九月 百濟州柔城始降於唐 是時 國人相謂之曰 州柔降矣...百濟之名 絕于今日 丘墓之所 豈能復往 下 361

## &lt;주 1-3&gt;

이기문(1972: 32-33)에 의하면, 고구려어는 현존 자료를 가진 유일한 부여계 언어다.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 卷 37)에는 고구려의 지명들이 한자의 음(音讀)과 뜻(釋讀)으로 함께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賈忽一云水城”에서 “水”라는 한자의 뜻이 “賈”라는 음으로, “水谷城縣一云賈忽”에서 “谷”이라는 한자의 뜻이 “忽”이라는 음으로 읽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에서는 “賈”가 mai 혹은 mie 로, “忽”이 tan 혹은 tuan 으로 읽혔다. 고구려어의 미에(水), 탄(谷), 이(入), 누아(土), 우사함(兔), 나머르(鉛) 등은 고대 일본어의 “미두,” “타니,” “이르,” “나(地),” “우사기,” “나마리” 등과 각각 유사하다. 백제어의 코마(熊), 키(城) 등은 고대 일본어의 “쿠마,” “키” 등과 각각 유사하다. 이기문 교수는 부여-고구려어는 신라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와도 직접적이며 가장 가까운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백제어는 신라어와 매우 가까웠다 한다. (이기문, 1972: 32-39)

양서(梁書)는, 백제어가 고구려어와 같다고 말할 뿐 아니라, 백제가 왜와 가깝기 때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을 했다 (其國近倭頗有文身者). 여기서 가깝다(近)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는 말이 아닐 것이다. 결국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는 부여-고구려-백제 언어가 신라어와 친족관계 일본어와도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라는 것이다.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오늘로서 백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제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곳을, 어찌 다시 찾아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일본서기와 고사기의 전편에 흐르는 그 많은 기록들 중에, 현대 일본 사학자들이 그들 교과서에 게재를 허용해 주는 것은, “백제의 왕인이 오오진 때 야마토에 천자문을 전해 주었다”라는 내용처럼, 티끌 같은 사례뿐이다. 무지한 요즘의 한국 사람들은 이것도 감지덕지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왕인의 도래를 기념한다는 소위 “왔소, 왔소” 행사를 매년 오오사가 에서 벌리고 있다. 2001년 12월 23일, 아키히토(明仁)가 자신의 68세 생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 개인으로서는 칸무(桓武, 737-806년) 천황의 생모가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쓰여있는데 대해 한국과의 연(緣)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일본 왕실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사실이 고대 한일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티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양서(梁書) 백제전은, 백제의 언어와 복장이 고구려와 같다고 기록 했다(今言語服章 略與高麗同). 서울대학교 이기문 교수에 의하면(1972: 34-35), 고구려어와 고대 일본어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 어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구려어의 수사(數詞)로서 3의 밀(密), 5의 옷(于次), 7의 나넌(難隱), 10의 덕(德) 등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고대 일본어의 미(三), 이츠(五), 나나(七), 터워(十) 등과 유사하다. 고구려어는 분명한 알타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알타이 언어들 사이에 수사의 일치는 매우 드문 사실인데, 유독 고구려어와 일본어 사이에 이처럼 많은 일치가 존재하는 것은, 이 두 언어의 분리 년대가 그다지 오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이기문, 1972: 35-36).” 고구려-백제어는 알타이 계통의 언어로서 고대 일본어와는 각별한 친족관계에 있었다. 즉 백제어와 고대 일본어의 분리 년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주 1-3>

#### (4) 본 저서가 추구하는 것

나는, 처음 한 5 년 정도의 연구 결과를, 1988 년에 초고 형식으로 (영문으로) 출판했다. 그 후, 한 5 년 정도 더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완전한 형식으로, 그 결과를 1994 년에 영문과 국문으로 출판했다. 이 두 차례에 걸친 노력은, 내가 주장하는 “쿠다라 야마토” 설의 합리성을 보여주는데 그 초점을 맞춘 것이다.

내 연구 결과는, 해외의 여러 학술지에서 서평 형식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하지만 나 자신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은, 당시 내가 쓴 글이 무미 건조하기 짝이 없는 경제학자의 학술 논문 형식에 가까웠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특화된 전문가 이외에는, 일반 독자가 흥미를 가지고 읽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 한 예를 보면, 1994 년에 출판된 국문판 책을 서울 대학교 동료교수 한 200 여명에게 주었는데, 지금까지 내 책을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은 그 중에 5 명도 안 되는 것 같다. 국내에서 국문 판이 모두 3 천 권 정도 나갔는데, 내 생각에는 정독을 한 사람이 10 여명 내외밖에 안되는 것 같다. 받아 본 편지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외국에서 영문판을 정독한 전문가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주 1-4>

내가 주장하는 학설은 쿠다라(百濟) 야마토(倭) 설이고, 내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다. 내가 이번에 추구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기존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을 흥미를 가지고 읽어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재정리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제일 먼저 당면한 문제는, 학문적으로 특화된 전문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비전문가인 일반 독자들이 원하는 읽기 쉬운 내용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 <주 1-4>

외국의 전문가들이란, 내 책의 서평을 써준 전통적인 역사 학자들뿐 아니라, 내 책을 읽고 인용을 해 준 J. Edward Kidder 같은 고고인류학자 (“Reply to Hannelore Eisenhofer-Halim's Review of William Wayne Farris, *Sacred Texts and Buried Treasures*,”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7:1, 2001, p.258), 또 J. Marshall Unger (“Layers of Words and Volcanic Ash in Japan and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7:1, 2001, p.89) 와 Juha Janhusen (*Manchuria: An Ethnic History*, The Finno-Ugrian Society, Helsinki, 1996, pp. 634, 653, 661) 같은 언어학자, Alissa Quart (“The Lost Emperors: Who is buried in Japan's imperial tombs? Thanks to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there's no way to know,” *Lingua Franca*, December 2000/January 2001, p.58) 같은 평론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흥미 있는 사실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내가 서울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서 경제학을 전공해 온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런 선입관이 없이, 내 책 내용 그 자체만을 있는 그대로 읽고나서 인용도 하고 서평도 써 준다는 것이다. 외국 학자들의 마음속에는 인위적인 자격 증명서나 전공의 장벽이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오랜 생각 끝에, 각 페이지의 안쪽 구석에는 원전의 인용문들을 한 문 그대로 그 출처를 밝혀서 인쇄를 하고, 바깥쪽에는 한글세대들이라도 부담감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가능한 한 대화체로 쓰기로 했다.

즉, 가능한 한, 한글세대에 속하는 독자를 바로 내 앞에다 놓고 내가 직접 이야기를 말로 해 주는, 짧은 문장의 구술 형식을 택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문장이 길어지면, 영어 문장처럼 쉼표(.)를 최대한 사용하여, 독자의 내용 파악을 쉽게 해 주려고 노력했다. 읽는 사람들의 독해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노력은, 요즘 적용되는 국문법의 띄어쓰기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들도 만들었다.

비전문가들은, 안쪽 구석에 나타나는 그 많은 한자들을,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나온 상형문자를 본 단 스퀘어의 디자인이나 추상화 그림 정도로 생각하여, 무시해 버리고, 내가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 주기 바란다. 그저 내가 하는 말들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믿어주면 된다. 전문가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서, 원전 인용문들을 하나하나 검토 해 보면 될 것이다.

서술 방법은, 각각의 사건의 자초지종과 인물의 전기를 모아서 기록을 하는 기전체(紀傳體)가 아니라, 년월일을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편년체(編年體)를 택했다.

내 책은 1 부와 2 부로 나누어진다. 나는 야마토 왕국의 건국 시조로부터 오호하쓰세(雄略) 재위기간[463-479 년] 까지만,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원본에서 나타나는 일본식 시호(和風諡號)를 사용한다. 여기 까지가 제 1 부를 구성한다. 그 이후 (제 2 부)부터는, 왕들을 지칭할 때, 현대 일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식 시호(漢風諡號) 만을 사용한다. 예컨대 오호하쓰세는 왕자 때부터 실제로 사용을 하던 이름이고, 유랴쿠(雄略)는 훨씬 후대에 만든 중국식 시호이다.

제 1 부에서는, 년도 추정을 비롯해서 핵심 내용을 이해 하는데 적지 않은 추리와 가정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제 2 부는 구태여 큰 가정을 하거나, 힘들게 추리를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기간에 해당

한다.

원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추정을 한 내용은, 그 사실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각진 괄호[ ] 속에 썼다.

Chapter 2 begins at 13.